



오스코텍 (Oscotec Inc.)

November 2025

TABLE OF CONTENT

1. Executive Summary

2. 임시주주총회 소집배경

3. 의안 설명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사외이사 김규식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사내이사 신동준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EXECUTIVE SUMMARY

임시주총 개최 이유-신뢰 회복과 갈등 종식의 첫걸음

- 오스코텍은 지난 수년간 주주와의 소통 부재, 제노스코 상장 추진 관련 불신, IR 미흡 등으로 누적된 불만을 해소하지 못해 심각한 신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 2025년 정기주총에서 CEO 재선임안이 부결되는 등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 극단적으로 표출되었으며, 그간의 오해를 바로잡고 주주 중심의 체제를 선언하기 위해 이번 임시주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성과는 있었으나, 소통이 부족했던 지난 시간들

- 오스코텍은 기술이전, 임상 승인, 글로벌 신약 상업화 등 바이오 기업으로서 보기 드문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들이 주주와의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고, 주요 의사결정의 배경과 목적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습니다.
- 회사는 그간의 IR 부족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주주의 의견을 경영의 중심축으로 삼고자 합니다.

제노스코 논란의 정리-모든 가치가 오스코텍으로 수렴되도록 설계

- 논란의 중심이었던 제노스코는 상장을 추진하지 않으며, 본 정관 변경을 통해 오스코텍의 100% 자회사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복 상장 우려는 완전히 제거되며, 제노스코가 창출하는 미래의 성과는 온전히 오스코텍 주주에게 귀속됩니다.
- 회사는 해당 주식 발행 목적을 전자공시로 투명하게 기재하여, 이번 정관 변경의 목적성을 제도적으로 확실히 보장하였습니다.

이사회 리빌딩-독립성과 신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 김규식 후보는 SM엔터테인먼트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고 한국거버넌스포럼 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자본시장 내 대표적인 주주가치제고 사례를 만들어온 인물입니다.
- 그의 이사회 합류는 오스코텍의 "말이 아닌 행동"으로서 시장과 주주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IR 체계 재정비 및 자본시장 친화적 인사 배치

- 신동준 전무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출신으로, 회사의 소통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2025년 CFO로 합류한 뒤, 적극적인 기관 미팅 및 언론 인터뷰를 통해 회사의 변화된 방향성을 대외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 그는 이번 주총을 통해 정식 이사로 선임되어 IR 및 주주관계(SR)의 중심에 설 예정이며, 이사회도 보다 투명하고 유연한 거버넌스를 지향하게 됩니다.

함께 성장하는 오스코텍-신뢰의 선순환 구조 정착

- 오스코텍은 이번 임시주총을 단순한 안건 승인 절차가 아닌,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신뢰 기반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 미래를 위해 변화하며, 모든 주주와 함께 기업 가치를 공유하는 투명하고 진화한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

1. Executive Summary

2. 임시주주총회 소집배경

3. 의안 설명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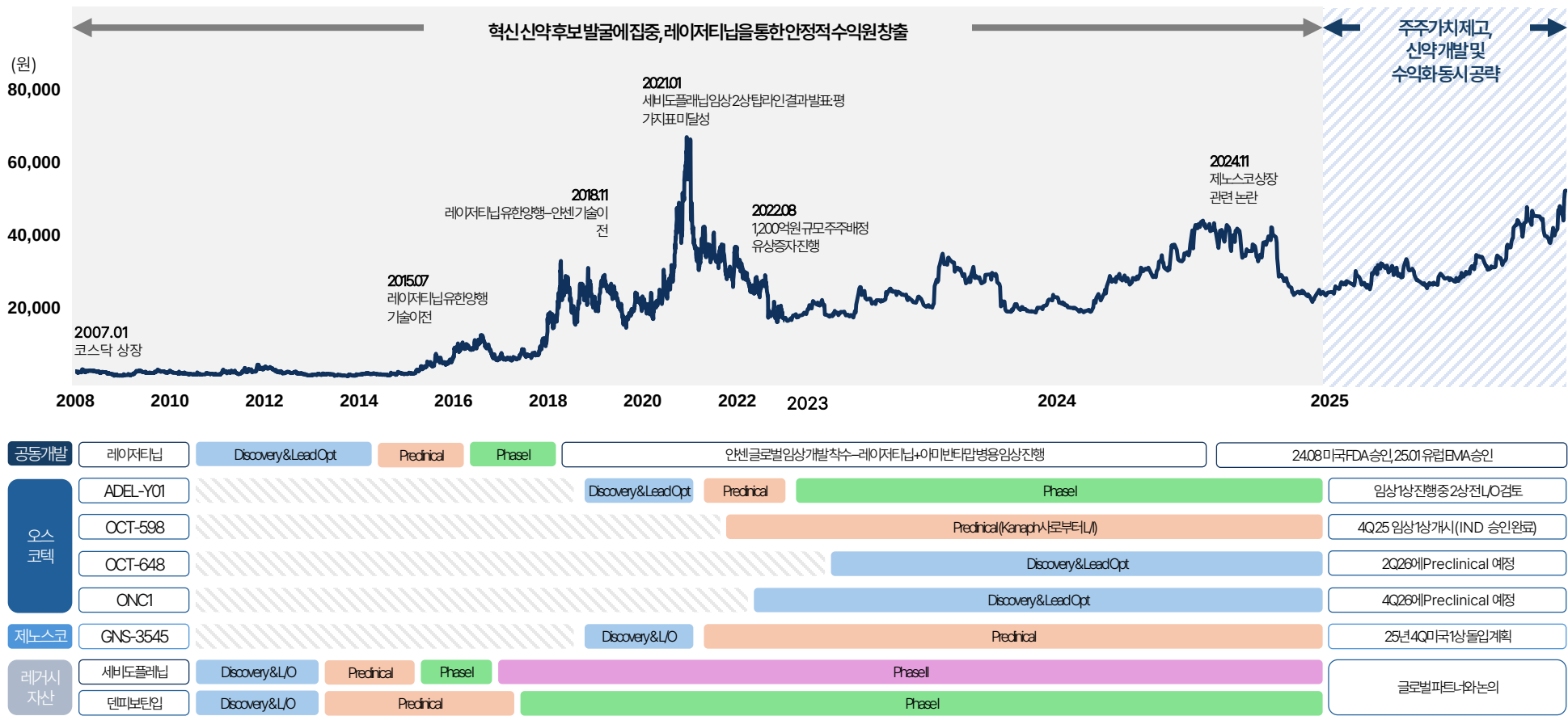
제2호 의안: 사외이사 김규식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사내이사 신동준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임시주주총회 소집배경

오스코텍과 제노스코는 설립 이래 다양한 혁신 신약 후보들의 발굴부터 개발, 기술이전, 상업화에 이르는 과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레이저티닙 기술이전을 통한 안정적 수익원 창출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주 소통 관점에서의 미흡점 인정, 향후 주주가치 제고에 방점을 둔 성장전략 추진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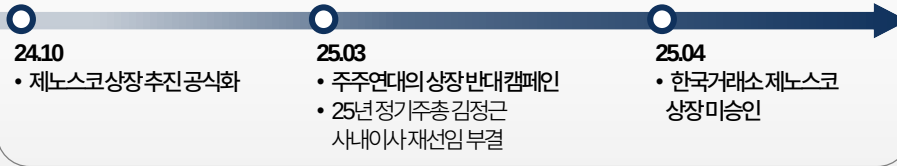


임시주주총회 소집배경

회사의 꾸준한 신약개발 노력과 그로 인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주 소통 미숙과 그로 인한 의사결정으로 주주들의 불만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이를 엄중한 사안으로 여기고 주주들의 불만을 확인, 이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이번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주주 불만 사항

제노스코 중복 상장 이슈



제노스코는 2000년 설립된 미국 법인으로, 오스코텍과 함께 블록버스터 약물 레라자(레이저티닙)의 원 개발사로서, 추가 R&D를 위한 자금 조달 필수적이었던 상황임.

회사는 자금 조달 방안을 IPO로 결정했지만, 결정 및 소통 과정에서의 주주 가치 제고 의지, 설득 노력이 부족해 주주 불만 누적됨.

이는 25년 정기주총 김정근 사내이사 재선임 안 부결로 이어졌으며 한국거래소의 최종 판단도 IPO 미승인으로 결정됨.

주주 불만 사항

회사는 상장 후 지금까지 높은 개인주주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정기적 주주간담회 등의 주주 소통 채널 마련에 미흡한 모습을 보였음.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고지와 설득, 나아가 경영 판단에 있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지 못했음.

단순히 신약 연구 개발 등의 본업 뿐만이 아닌, 주주 가치 제고 노력 및 IR 활동 전반에 대한 회사의 모습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회사 대응: 제1호 의안

오스코텍은 제노스코 지분 59%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로, 제노스코 상장 시 오스코텍 주주들은 '더블카운팅'으로 인한 지분가치 희석 효과 발생할 것이기에 회사는 주주들의 제안에 따라 제노스코의 100% 완전 자회사화를 결정,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 가치를 제고할 것임.

현재 회사의 재무 상황 상 이를 위해선 추가 자금 조달 필수적, 현재 한도에 다다른 수권주식수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 필요. 회사는 공시를 통해 이번 수권주식수 확대를 통해 조달할 자금의 용처를 명시하였으며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없을 것임.

구분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제1호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00,000주 로 한다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 로 한다

회사 대응: 제2호 의안

회사는 연구개발직에만 치중된 이사회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재무 역량을 보유한 전문경영인 후보자, 주주 가치 제고, 법률 측면에서의 전문성을 보유한 후보자를 신규 선임해 이사회 BSM 개선에 나섬.

구분	안건명	의견
제2호	사외이사 김규식 선임의 건	경영진과 일반 주주 간 이해관계를 일차시킴 선순환 구조 구축
제3호	사내이사 신동준 선임의 건	자본시장과 투자전략분야의 전문가로 회사의 재무 정책 및 IR 역량을 고도화

TABLE OF CONTENT

1. Executive Summary

2. 임시주주총회 소집배경

3. 의안 설명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사외이사 김규식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사내이사 신동준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의안설명 개요

안건명		제안	권고
제1호	정관일부 변경의건 -발행예정주식의총수 변경	이사회	찬성
제2호	사외이사김규식선임의건	이사회	찬성
제3호	사내이사신동준선임의건	이사회	찬성
제4호	감사보수한도승인의건	이사회	찬성

구분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호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00,000주로 한다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로 한다	자회사 제노스코(Genosco)의 완전 자회사화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원 마련
	[부칙] 16. 이 정관은 202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6. 이 정관은 202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의안설명

회사는 주주들의 의견에 따라 제노스코 상장 추진을 중단, 100% 지분확보를 통한 완전 자회사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노스코 완전 자회사화는 내부거래 및 손익배분의 명확성, 지배구조 개선, 기업가치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같은 관점에서 주주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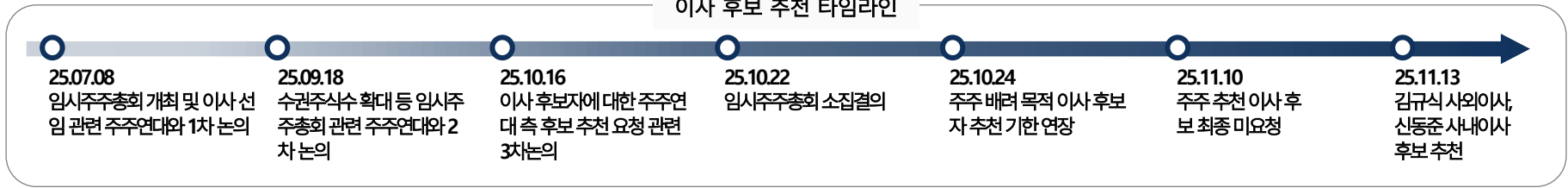
이는 현재 회사의 제노스코에 대한 지분 59.12%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 40.88%에 대한 매입을 필요로 하며, 회사의 재정 상태를 고려 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향후 전략적 또는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할 예정이며, 이번 수권주식수 확대는 오로지 향후 1~2년 내 위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제노스코 기업가치평가 방식에 있어서는, 독립된 외부 전문 기관의 객관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할 것이며 의사결정의 전 과정에 있어 투명하게 공개드릴 것을 추가로 약속 드립니다. 아울러 회사는 이번 정관 변경의 목적, 재원 활용 방안, 기업가치 산정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모두 공시하여 추가적인 주주 신뢰를 제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회사의 기발행주식수는 3천8백만 주로 발행 가능한 주식 수의 95.6%가 이미 발행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번 수권주식 확대는 기존 4천만 주에서 5천만 주로 25% 증가에 해당합니다. 코스피 및 코스닥 내 의약품 제조업 기업의 평균 발행주식수/수권주식수 비율이 33.2%¹⁾(코스피 38.1%, 코스닥 30.1%)인 점을 고려 시 이번 수권주식수 확대 정관 변경이 절대 과도하거나 무리한 확대가 아닌 점 고려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실제 주식 수의 증가가 아닌 발행가능 주식총수의 증가인 점, 자금 조달 후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선행되었다는 점에서 주주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회사의 선택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Source: 1) 기업공시기업가치항내의약품제조업기업으로분류된코스피41개, 코스닥64개기업평균, 3Q25기준

해당 의안은 독립된 사외이사 선임을 통한 주주권 제고 역량 증대, 전문경영인 선임을 통한 재무,IR 역량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주총회 소집결의 이전부터 주주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사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였지만 별도 제안은 없었으며, 내/외부 추천을 통해 의안 상정하였습니다.

이사 후보 추천 타임라인



이사선임배경 설명

회사는 주주들의 지속적 요청 사항이었던 독립적 이사회, 주주가치 제고 및 경영진 견제가 가능한 이사회, 재무,IR 등 향후 오스코텍을 단순 연구개발 측면이 아니라 모든 사업적 방면에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사 신규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현재 회사의 이사회는 총 4인(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1인)으로 연구개발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어 이사회 BSM 상취약점이 존재하고, 이는 현재 회사가 직면한 중요 경영 과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판단하여 최대한 빠른 이사 선임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스코텍 현재 이사회 BSM		산업전문가	기업가치제고	재무및회계	법률	리스크관리	ESG
사내이사(2020.03~2026.03)	윤태영	●	●				
사내이사(1999.09~2028.03)	이상현		●	●		●	
사외이사(2024.03~2025.03)	곽영신	●	●				
사외이사(2023.03~2026.03)	홍남기			●		●	
합계		2	3	2	0	2	0

회사에 필요한 책임자를 폭넓게 알아보기 위해 주주총회 소집결의 이전부터 주주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사 후보자에 대해 책임자가 있다면 추천을 요청하였고, 시간이 촉박한 점을 감안하여 주주제안 기일보다 추가로 약 일주일 동안 검토할 시간을 부여하는 등 주주친화적 활동 측면에서 배려를 하였습니다. 다만, 소수주주측에서는 검토 시한내 별도의 제안이 없었기에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 안전만 부의되었습니다.

회사는 이와 별개로 시장과 상장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이사 후보를 지속적으로 물색했으며, 자본시장에서 직접 주주가치 제고 사례를 만들어 오신 김규식 변호사님을 후보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재무,IR 전문가로서 25년 7월부터 회사에 합류하신 신동준 전무도 이번 이사회 합류를 통해 보다 주주친화적이고 선진화된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김규식 후보자는 법률, 리스크 관리,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의 전문가로 독립적 이사회 활동 강화를 통해 경영진과 일반 주주 간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외이사 김규식 후보자 소개

핵심 경쟁력 및 직무 수행 계획

기업거버넌스 개선, 주주권익 보호, 이사회 독립성 확립 측면에서의 전문성 보유

-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여러 활동을 해온 기업자배구조와 법률 분야 전문가
-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 시각에서 이사회의 본 기능인 경영진에 대한 감시, 자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보유
- 공정한 거버넌스에 기반한 '상생과 변영'이라는 직무수행 철학 아래 경영진과 일반 주주 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선순환 구조 구축 목표
 - > 이사회 기능 강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견지에서 이사회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진 감독 기능 강화
 - >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오스코텍의 핵심 역량인 신약개발(R&D) 부문의 장기적 가치와 안정적 사업의 균형 있는 성장 지원
 - > 주주가치 제고: 회사의 성과가 모든 주주에게 공정하게 귀속될 수 있는 투명한 거버넌스 및 주주환원 정책 마련

BSM 전문 분야

산업전문	-	법률	●
기업가치	-	리스크	●
재무 회계	-	ESG	●

주요 이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전) 금융감독원 법률고문
 (전) KSA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현)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
 (현) Portfolio Manager, Vista Global Asset
 Mgmt. (Singapore)
 (현)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 사외이사

후보자 활동 및 기사

- 김규식 전 회장, "상법 개정 반대 측은 주주 수탈하는 재미로 경영하나?"... "한국만 무법천지" _2025.02.25_일요신문
 -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은 경영 저해 아닌 당연한 원칙 주장
 - 이사의 활동에 있어 독립위원회 검토, 정보 투명성, 주주총회의 승인 중요성 강조
- 김규식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동일인 지정제 명문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 _2023.07.26_조선비즈
 - 동일인 지정제 명문화 시, 이사회에서 선출한 경영진이 아닌 국가가 지정한 동일인이 회사 이끌 수 있음을 우려
 - 동일인 제도보다는 주주총회에 대한 규제, 상법에 의한 규제가 필요함을 강조
- 김규식 한국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주주 위한 보상, 주주환원을 평균 50%는 돼야" _2023.04.03_한국금융
 - 한국의 낮은 평균 주주환원을 지적, 국민연금의 소극적인 스튜어디십 코드 지적
 - 주주 행동주의의 장점과 기업 거버넌스 확립의 중요성 강조

신동준 후보자는 자본시장과 투자전략 분야의 전문가로 회사의 재무 정책 및 IR, 역량을 고도화 하여 향후 제노스코의 완전 자회사화, 시장과의 신뢰 구축, 투명한 자본 운용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내이사 신동준 후보자 소개



BSM 전문 분야

산업전문	-	법률	-
기업가치	●	리스크	●
재무 회계	●	ESG	●

주요 이력

서강대학교정치외교학과,
중앙대학교경제학과(박사)
(전)미래에셋증권Trading부문운용전략실장
(전)KB증권리서치센터장
(전)KB증권WM솔루션총괄본부장
(전)중앙대학교경제학과객원교수
(현)송실대학교금융경제학과겸임교수
(현)오스코텍전무이사

핵심 경쟁력 및 직무 수행 계획

자본시장 이해, 투자 전략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무 정책 및 IR 분야에서의 전문성 보유

- 국내 유수의 증권사에서 투자전략 및 자산운용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
- 특히 KB증권 리서치센터장 및 투자전략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전략 수립 경험 존재
- 제노스코 완전 자회사화, 자금 조달 및 자본 배분 과정에서의 재무 투명성 제고, 시장과의 신뢰 구축 등 중대한 경영과제에 대한 책임 있는 경영 가능
- 나아가 주주 소통 및 IR 활동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주주와 회사가 같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 가능
-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제안한 경영 전문성 강화 목적의 선임으로 재무관리 부문 경쟁력 제고, 주주 가치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대 가능함

후보자 활동 및 기사

- 오스코텍, KB·미래에셋증권 출신 신동준 CFO 선임 “책임있는 재무전략 실행”_2025.07.02_더바이오
 - 자산 관리 및 투자 분야 전문가 영입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체계 구축
- “트렌드보다 본질... KB증권 원보이스 구축하겠다”_2022.02.25_더벨
 - 신동준 KB증권 WM솔루션총괄본부장, 시장 분석 및 하우스 투자 전략 구축·포트폴리오 구성 계획
- 기타 활동
 - 수상: 2023년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한국의 경영대상 (Innovative Service of the Year)
 - 2011년 매경 증권인상(투자전략)
 - 2014년 ~ 2021년 베스트 애널리스트 자산분배전략 1위
 - 2004년 ~ 2014년 베스트 애널리스트 채권 1위
- 저서
 - THE GREAT SHIFT 대전환기의 투자전략, 2024, 메이트북스
 - 채권투자기초 1권, 2권, 2024, 한국금융연수원(공저)
 - 한국경제대전망 2022, 2023, 2024, 2025, 2026 21세기북스(공저)

회사의 현 이사회는 바이오 산업 및 R&D 역량은 보유하고 있으나, 법률·주주가치 제고·ESG 역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신규 이사 선임을 통해 현 이사회 BSM의 취약부분을 보완, 주주가치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분		산업전문가	기업가치제고	재무및회계	법률	리스크관리	ESG
오스코텍기존이사회							
사내이사(2020.03~2026.03)	윤태영	●	●				
사내이사(1999.09~2028.03)	이상현		●	●		●	
사외이사(2024.03~2025.03)	곽영신	●	●				
사외이사(2023.03~2026.03)	홍남기			●		●	
임시주주총회이사후보자							
사내이사(2025.12~2028.12)	신동준		●	●		●	●
사외이사(2025.12~2028.12)	김규식				●	●	●
합계		2	4	3	1	4	2
기존대비개선		유지	3→4	2→3	0→1	2→4	0→2

제4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전기 1인이었던 회사의 감사는 현재 총 2인(이광열 상근 감사·이강원 비상근 감사)으로 보수총액 증대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감사 보수한도 증가를 통해 향후 더욱 효과적이고 투명한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과 경영진·이사회 감시 및 보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분	감사의수	보수총액또는 최고한도액
제4호	(당기)2명	(당기)90,000,000
	(전기)1명	(전기)70,000,000